

해 바뀌어도 광주 소매·유통업체 체감경기 '꽝꽝'

광주상의, 1분기 경기전망지수
경기악화...10분기 연속 기준치 ↓
72% "소비심리 회복 지연 우려"
78% "트럼프 2기, 부정적 영향"

올해에도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분기(85)와 동일한 '85'로, 경기 악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겨울방학 및 명절 특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정세 불안, 고물가에 따른 민간소비 침체와 더불어 채널 간 경

쟁까지 심화되면서 체감경기가 10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이번 분기 경영활동 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업체가 인건비, 금융, 물류비, 전기 등 '비용 부담 증가(63.8%)'를 꼽았으며, 이어 '수익성 악화(10.6%)',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8.5%)', '시장경쟁 심화(8.5%)', '유통규제(4.3%)', '미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4.3%)'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백화점은 전분

기와 비슷할 것으로, 편의점·슈퍼마켓은 모두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마트(100)는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업황 저하 지속 및 이커머스 등 타 채널들로의 식품 수요 이전 등으로 인해 기준치(100)를 상회하지 못했으며, 백화점(100) 또한 명품수요 성장 둔화 및 패션 용품의 온라인 수요 확대 등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점(76)은 근거리, 소량구매 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침체 장기화 및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슈퍼마켓(73) 역시 고물가로 인한 절약 소비 확산, 업체 성장 둔화 등으로 악화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내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72.3%가

'소비심리 회복 지연'이라고 답했으며, 인건비, 금융, 물류비, 전기요금 등 '비용 부담 증가(53.2%)',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23.4%)',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19.1%)', '시장 경쟁 심화(17.0%)', '중국 전자상거래의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8.5%)'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조사 시점(2024년 12월)의 계엄 및 탄핵 소추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업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57.1%)'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22.9%)', '영향이 없을 것(20.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책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업체들의 78.7%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21.3%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2기 정책이 국내 유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가장 많은 업체들이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35.1%)'를 꼽았으며, 이외에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등 하락(32.4%)',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24.3%)',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21.6%)',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18.9%)'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부진 및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 불확실성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며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호플러스, '원 바이트 밀' 인기 호플러스는 강정, 초밥 등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원 바이트 밀(One bite meal, 한 입 음식)' 델리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호플러스 관련 델리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상품별 최대 82% 뛰었다.

호플러스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 링' 사이즈 2종 신규 출시

24일부터 대형 14호·15호

삼성전자가 종합적인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갤럭시 링' 신규 사이즈 2종을 오는 24일부터 국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되는 신규 사이즈는 14호와 15호로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5호부터 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운영된다. 가격은 49만 9400원이다.

또 2월부터 일본, 체코 등 15개 시장에 추가 출시예정인 총 53개 시장에서 판매된다. 삼성전자의 최첨단 센서 기술이 집약된 갤럭시 링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밀착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편안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하다.

갤럭시 링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정보는 '삼성 헬스'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 헬스는 지난 13일부터 더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앱 기능 업데이트를 시작



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더욱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삼성 헬스' 앱 기능 업데이트를 13일부터 시작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사용자 수면 단계 분석과 함께 '마음챙김' 기능과 수면 관련 기능 2가지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마음챙김 기능은 사용자가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본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을 삼성 헬스 앱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한다.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은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기능으로 상반기 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중흥그룹,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용지 공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9만평 규모

중흥그룹은 오는 2월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1차 용지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자리하며 95만6296㎡(약 29만평)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이곳을 600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은 선월하이파크밸리㈜가 담당하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이번에 공급되는 1차분은 △이주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업무시설용지 3필지 △문화시설용지·공동주택용지 1필지 등이다. 2차분은 △상업시설용지 4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4필지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오는 6월 중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순천을 대표하는 신대지구가 바로 인근에 자리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약 3만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조성되는 신대배후단지와의 인접해 향후 주거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풍일반산업단지, 울촌일반

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를 비롯해 광양과 여수를 대표하는 광양항만, 포스코 광양 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과의 거리가 인접한 만큼,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순천을 비롯해 광양과 여수 등과 연계되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주거단지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전남 동부권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건강함과 교육, 문화가 모두 어우러진 명품 도시를 조성해 전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완성도 높은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연 2.5% '매월이자Wa예금' 출시

500만~10억 비대면 가입 가능

광주은행은 최근 안정된 고정 금리(연 2.50%)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해지시 만기축하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인 '매월이자Wa예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월이자Wa예금'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파킹통장의 장점을 살려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변동금리 보다 안정적인 고정

금리(연 2.50%)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만기까지 자금을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 만기축하금리(3개월 연 0.55%p, 6개월 연 0.50%p, 12개월 연 0.40%p)를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이자를 입금 받은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지급된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이며, 가입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

주 와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변미경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매월이자Wa예금"은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광주은행의 실속형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친화적 상품 개발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27일까지 '한강 북라운지' 운영

광주신세계가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본관 1층 광장에 오는 27일까지 '한강 북라운지(BOOK LOUNGE)'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강 북라운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싶을 수 있는 독서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조성했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흰' 등 한강 작가 대표작 15종을 비롯해 한강 작가의 추천 도서 5종을 포함해 총 20여종의 책을 만나볼 수 있



다.

또 작가 소개, 대표작 설명 부스를 마련해 한강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립'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 마음에 울림을 준 한 문장'이라는 주제로 독서 후 인상 깊은 구절을 메시지 카드에 적어 신세계 백화점 앱 아이디와 함께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한강 스페셜 에디션'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는 한강 북라운지 행사 종료 후 구매한 도서를 ESG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